

80만대 전국곳곳 달렸다… 지속발전 통해 ‘고객감동’ 선사

BMW, 한국 진출 30년 발자취

브랜드 역사 담은 전시공간 운영
드리프트·오프로드 등 체험 눈길

하반기 1·2시리즈 국내 첫 공개
고성능 해치백·그란쿠페 관심 집중

수입차 브랜드 최초로 BMW그룹코리아(BMW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BMW코리아는 지난 1995년 7월 BMW의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난 해까지 누적 판매량 80만8409대를 판매하면서 국내 대표 수입차 업체로 자리 잡았다.

BMW코리아는 30주년을 맞이해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 일원에서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전의 즐거움, 내일의 새로움으로(Define Driving Pleasure Again)’라는 슬로건을 통해 고객들을 맞이했다.

먼저 전시 공간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존과 차량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존에서는 BMW 코리아가 지난 1995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한국 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주요 순간들을 소개했고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LG그룹, 한국타이어,



하반기 출시 예정인 BMW 1시리즈(오른쪽)와 2시리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방전지 등과의 협업 성과도 함께 조명했다.

지난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를 도입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서면서 새로운 자동차 문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차량 전시 공간에서는 BMW를 대표하는 클래식 3시리즈와 5시리즈, 7시리즈가 맞이하면서 중년층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 새롭게 투입될 BMW의 새로운 소형차 1시리즈와 2시리즈도 미리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M135는 해치백 형태, M235는 그란 쿠페 형태로 고성

능 주행을 할 수 있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또한 BMW iX5 하이드로젠과 전 세계 50대 한정 생산 예정인 ‘BMW 콘셉트 스카이트’ 등 미래형 콘셉트 모델까지 다채롭게 전시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브랜드의 진화를 선보였다.

트랙 및 오프로드에서 진행된 택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BMW 차량의 퍼포먼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BMW 드라이빙 센터의 전문 카레이서(인스트럭터)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올라 BMW 차량의 성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먼저 BMW M모델의 퍼포먼스를 느



BMW코리아 3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드리프트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승용기자

끼는 온로드 트랙 택시에서는 고성능 모델 M3 차를 탑승해 가속력과 코너링 구간에서의 안정감을 체험할 수 있었다. 드리프트 주행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타이어의 노면 마찰로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 생동감을 더했다.

SUV 차량인 X5로 진행된 오프로드 택시에서는 철길 코스, 통나무 코스, 급경사 코스, 모래 코스 등 다양한 지형을 통과하면서 패밀리카를 넘어 오프로드도 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또한 BMW, MINI, 모토로드가 함께 펼친 드리프트 퍼포먼스를 통해 보는 즐거움도 더했다. 차량 간의 간격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드리프트를 통해 빠져나갔고, 정면으로 마주쳐 오는 상황에서 곡예운전을 선보여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다.

어드벤처존에서는 가족단위 고객을 생각해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 레이싱 시뮬레이션, 골프, 드론 체험, 사격 등 다채로운 체험공간을 마련했고, 푸드 트럭도 마련되어 있어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선보였다.

30주년을 맞이한 BMW 코리아 앞으로 한국시장에서의 발전을 거듭해 수입차 1등 브랜드의 면모를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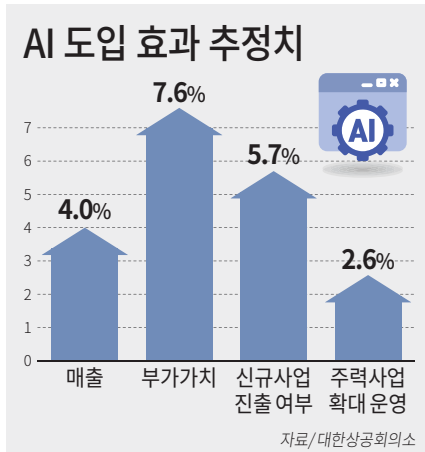
대한상의 “AI 도입 기업, 매출 4% 증가”

부가가치 7.6% ↑·생산성도 개선
상위 성과 기업 비중도 도입 후 확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매출과 부가가치가 미도입 기업보다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SGI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017~2023년 동안 기업의 AI 도입 여부와 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이번 분석은 통계청 기업활동 조사 데이터(2017~2023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SGI가 AI 미도입 기업과 AI 도입 기업의 도입 이전 및 이후를 구분해 매출·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TFP) 분포를 비교한 결과, AI 도입 기업은 전반적으로 미도입기업 대비 성과



와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가가치가 평균 약 7.6% 높고, 매출은 약 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도입 이후에는 상위 성과 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AI 도입률은 지난

2023년 기준 6.4%로, 2018년(2.8%) 대비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 이후인 2022년 이후부터 도입이 크게 늘었다.

SGI는 AI 기술이 기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특화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경영 역량과 기술 역량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I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AI 기술 도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경영진의 AI에 대한 이해도와 판단 역량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 집행부 ‘전원 사퇴’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에 조합원 반발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집행부가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전원 사퇴했다. 노조 내부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성과급 제도와 복리후생 개선 협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지난 4일 노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임원 전원은 오늘부로 임기를 조기 마무리하고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임금교섭과 4기 위원장 선거 일정이 겹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3기 집행부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약 9개월이 남았지만, 최근 불

거진 임금협약 관련 논란이 사퇴 배경으로 지목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3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주 30주 전 직원 지급 등을 포함한 2025년 임금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전임자)에게 더 높은 인상률 6.2%가 적용됐고, 이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불신이 퍼지며 조합원 수는 3월 3만7000명에서 최근 7000명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삼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조합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다. 4기 임원 선거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장미선 전삼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집행부는 조합 내 신뢰와 소통이 크게 흔들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진 사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룰루레몬, 얼라인 출시 10주년 기념 캠페인

성수동서 아카이브 전시 등 이벤트

룰루레몬이 얼라인 컬렉션 10주년을 맞아 성수동에서 아카이브 전시 및 퍼포먼스 이벤트를 열었다. 룰루레몬이 대표 제품군인 ‘얼라인’ 컬렉션 출시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룰루레몬은 지난 5일 서울 성수동 ‘LCDC 서울’에서 기념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제품 ‘얼라인 노 라

인’ 하이라이즈 팬츠 출시와 더불어, 얼라인 컬렉션의 지난 10년간 진화를 조망하는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해부학 기반 핏셔널 요가를 지도하는 룰루레몬 앰배서더 제이사(Jaisa)의 요가 세션과, 안무가 이윤희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브랜드 메시지인 ‘나를 살아 있게 하는 움직임(Live Like You Are Alive)’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전개됐다.

/최빛나 기자

스테인리스 산업에 ‘상생 아이디어’ 더한다

중기중앙회, 공모전 참가자 모집
중기부 장관상 등 4000만원 상금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생형 철강 산업 혁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중기중앙회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부,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이 후원한다. 스테인리스에 적용 가능한 제품, 기술, 서비스, 아이디어 전반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혁신안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실생활 분야를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로 공모 대상이 확대됐으며, 참가 자격도

기존 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재직자가 주로 넓어졌다.

총 40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중소기업부장관상 각 1000만 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과 한국철강협회장상 각 500만 원씩 총 6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포스코와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녹색기술 인증 취득 컨설팅 등 후속 지원도 연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